

방과후 자유수강권 운영실태 점검

전북교육청, 도내 초등학교 100곳 대상 예산집행 투명성·신뢰성 제고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유수강권

운영 및 집행실태를 파악해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학교 200교 중 100개교다. 주요점검 사항은 ▲출석관리 및 지원대상자 수강 여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관리대상 ▲월별 수강 한도 및 수강 강좌 수 제

한 여부 ▲학교장 추천서 및 증빙서류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점검 및 서면 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지원내용과 집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방과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관장학회가 최근 부안교육지원청에서 27명의 졸업생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관장학회,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

부관장학회(이사장 김재근)는 최근 부안교육지원청에서 홍승완(20·부안고 졸업)학생 등 27명의 졸업생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중 홍승완 학생은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입학 예정이다.

홍승완 학생은 “부족한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지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부족한 없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재근 이사장은 “지금의 학생들이 있기까지 부모와 스승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우리 고장의 미

래는 청소년에게 있고 꿈이 있는 청소년이 있을 때 우리 고향과 국가의 미래가 밝은 만큼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부관장학회는 인재 육성이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라는 장학회 설립 이념에 따라 1978년부터 40년 동안 지역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부안교육문화회관, 맞춤형 영상정보 서비스 제공

부안교육문화회관(관장 김성화)은 지난 1일부터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영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자료실에서는 기존에 DVD 관내 대출 반납 형태로 영상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DVD 제작 산업의 쇠퇴로 출시되는 영화 편수가 감소되고, 이용자들에게 최신 영화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부안교육문화회관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비스 도입을 구상했고, 도내 공공 도서관에서는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란, 기존 방식의 이용자에게 DVD를 대출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국내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등 70여개의 채널과 VOD(Video on Demand) 및 영화 등을 서비스하는 콘텐츠 플랫폼이다. 대략 200,000종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EBS(교육방송), 시사교양, 해외 다큐, 인문학 자료까지 시청할 수 있다.



순창북중학교 역도팀.

전북체육 위상 높은 영광의 얼굴들

대한체육회 체육상 도내서 우수상 2팀·장려상 3명 선정

순창북중학교 역도팀 등 5명(팀)이 대한민국 체육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가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도내에서는 순창북중학교 역도팀과 부안군체육회 정명순 생활지도자가 각각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북 역도 간판인 유동주(진안군청) 선수와 김경열 전북도청 레슬링 감독, 전북체육중학교 근대 5종 임성태 지도자는 장려상을 수상한다. 순창북중학교 역도팀은 지난해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서 전북 역도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였다.

특히 창단 26년만에 3관왕 선수를 2명이나 배출했고, 현재까지 7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역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명순 지도자는 1200여명에 이르는 체조 동호인을 육성시키는 등 부안지역 생활체조를 활성화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부안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동주 선수는 지난해 전북 일원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김경열 감독과 임성태 지도자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체육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체육,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청소년 비즈쿨 지원 사업’ 체험 위주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청소년 비즈쿨 지원 사업’이 올해 체험과 실습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학생들은 로봇·드론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학교 지정 기간도 기존보다 연장된다.

중기부는 올해 400여 학교를 비즈쿨로 지정하고 ▲창업·경제 교육 ▲문제 해결 체험 활동 ▲창업 동아리 ▲전문가 특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다.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기부는 비즈쿨 지원 사업을 앞서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예산은 76억원이다.

비즈쿨 사업 학교로 지정되면 기업이 정신 교재, 창업 동아리 운영 관련 재료비와 체험 활동비, 전문가 강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학교당 지원금은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사업을 체험과 실습(Learning by making) 위주로 전면 개편했다.

이로써 연인원 100만 명에 달하는 청

소년이 메이커 스페이스, 찾아가는 체험교실 등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다가온 로봇, 드론, 아두이노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시간을 갖게 된다.

부처는 이 같은 체험 활동을 토대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 학교의 비즈쿨 지정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즈쿨 교사들의 권의를 반영했다.

개편 방안은 지난해 4차례 전문가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산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창업진흥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의 전문가, 대학교수, 비즈쿨 교사 등이 참여했다.

청소년 비즈쿨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초·중·고교(학교박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